

## 거짓된 사회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산다. 그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이든, 까만 거짓말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본의든, 타의든 긴 세월을 살면서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산다. 특히나 현대 사회는 관계의 연속성이다. 내가 속한 국가, 지역 사회, 회사, 교회, 학교 등등 나 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다. 조직에 속하다 보면 조직의 문화와 법규에 구속된다. 나만의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 기존 체제에 반대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 흔히들 출세한다거나 성공한다는 것은 조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원하는 것을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거나,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할 때 비로서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은 너무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거짓말 하는 것에도, 거짓말을 듣는 것도 너무 익숙하다.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 사고 가해자인 당사자들도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내 자신도 거짓된 삶에서 자유롭지 못함은 아닐까. 이번 세월호 사건에는 너무나 많은 해당 기관과 당사자들이 연류되어 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고 당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가해 당사자들의 재판이 끝나는 긴 시간동안 진실이 얼마만큼 밝혀질까.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의 책임회피에만 전력을 다할 것이다. 결국 그들 중에서도 힘이 약한 자와 조직에 쓸모가 없는 자들만이 감옥에 갈 것이다. 언제나 그래 왔듯이 약자의 진실 게임은 강자의 거짓과 권력 앞에 묻혀지고 잊혀진다.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는 서민 대중들은 먹고 살기가 바빠서 아픔도 잠시일 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는 사이에 또 다른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이며, 세상의 이목은 새로운 곳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이다.

과연 한국의 <구조적 비리>는 없어질 수 있을까? 아니 조금이라도 이번 계기에 개선될 수 있을까? 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짓된 사회>라고 감히 이야기 한다. 한국은 오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오로지 한가지 목표만 가지고 달려 왔다. <잘 살아 보자> 라는 한가지 목표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남들보다 잘 사는 방법은 공부 잘해서 일류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이나 정부관료, 의사나 법조인이 되는 것이었다. 아니면 죽기 살기로 일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정직한 사회>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정과 타협하고 권력과 손을 잡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은폐하고, 거짓말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거짓말을 묵인하는 것이다. 그런 풍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다면 거짓된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국은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한강의 기적은 만들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소외 계층의 고통은 더 깊어만 갔다. 경제적 부는 축적했는지 모르지만, 가정은 깨어지고, 사제지간의 위엄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동방 예의지국>은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아름다운 동방의 나라>라고 칭송한 이래, 옛말이 된지 오래다. 돈 많은 자가 존경받는 사회고, 돈만 있으면 안되는 것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황금 만능주의와 쾌락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고 출세 지상주의 국가다. 온 나라가 성형 중독에 빠지고 명품에 중독된 한국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도덕 불감증 사회이며, 양심 부재의 사회다. 하지만 한국은 서구 선진국들 처럼 잘 사는 나라가 결코 아니다. 일개의 대기업이 한국 경제의 20%를 책임지고 있다면, 이것은 기형화된 구조로서 극히 위험하다.

이번 세월호 사건도 연관되지 않은 사회 조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부가 그렇고, 관공서, 공공 기관, 법조계, 경찰, 언론 기관, 학교, 기업체, 심지어 종교 단체까지 총 망라된 총체적 부실이며, 총체적 부정이며, 총체적 타락이다. 이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허상이며, <거짓된 사회>인 것이다. 한국의 부정과 비리, 뇌물과 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어느 특정 사회의 문제점이 아니다. 마치 커다란 떡이사슬 구조로 되어 있다. 한국이라는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떡이 사슬에 스스로 결박당해야 한다. 그래서 부정 부패의 반복된 습성이 몸에 베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진 자들이 무슨 생명의 존엄성이며, 인권이 있겠는가. 수백명의 어린 학생 목숨보다 떡이 사슬 구조인 그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사람의 생명이 존각을 다투는 절대 절명의 그 시간 동안, 충분히

---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그 천금 같은 시간에 가해자인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학부모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는 동안 한국이라는 사회 구성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세월호 사건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가슴에 슬픔과 통한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나라가 내 자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이나라를 버린다.”라는 엄마의 절규가 차라리 죽은 영혼들을 위로할 것이다.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의미가 없다. 미국이 <멕시코 전쟁>을 치루기 위해 ‘인두세’를 거둘 때, 거부 운동을 펼치다 감옥에 간 <시민 불복종> 과 <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빗 소로우처럼, <시민 불복종>은 사상과 양심의 잣대로 볼 때, 결코 용납할 수 없어서 행하는 정의로운 행위이다. 거짓과 부정에 한국인 한사람, 한사람이 한국의 <거짓된 사회>와 단단히 맞서 싸워야 한다. 그래야 한국도 비로서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